

아동권리존중 체크리스트

우리는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나?
 한번 체크해보세요!

- 1

자녀에게 단 한번도 때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하지 않았다.

☐

2

도구 또는 휴대폰 매체를 통해 자녀에게 위협하지 않는다.

☐

3

자녀와 이야기 할 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

☐

4

자녀에게 비난 같은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5

자녀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지 않는다.

☐

6

자녀가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활동을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

7

가정에서 식사 시간에 자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지 않는다.

☐

8

자녀의 요구에 대해 모른 척 하거나 무반응 하지 않고 항상 반응하여 준다.

☐

9

부모 개인적인 행동을 하느라 유아를 방치하지 않았다.

☐

10

자녀가 행동 한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지 않는다.

☐

★ **10가지 모두 체크 되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아이를 존중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이네요!

하지만 한 개라도 체크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한번 '아동권리존중'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일, 아이를 존중하는 일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니깐요!

오시는길



전철&버스 이용시

제물포역 ①번 출구

→ 4, 23, 33번 버스 승차(장안사거리 하차)

도원역 ②번출구

→ 10번 버스 승차(송의초등학교 하차)
 → 2801번 버스 승차(송의2동 주민센터 하차)

동인천역

→ 23, 4번 버스 승차(장안사거리 하차)
 → 6, 41, 48, 46, 112번 버스 승차(송의교회 하차)

자동차 이용 시

네이게이션에 인천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미추어린이집 검색

인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19번길 10-18, 4-5층(송의2동)
 T. 032-884-0756, 885-0756 F. 032-888-0757 E. nccic0756@hanmail.net
 www.nccic.or.kr

인천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양육정보지 2017. 12.

토닥토닥 아이생각

아동권리존중편



인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권리란?

예전에 비해 이제는 조금 자주 접하게 되는 말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른 또는 부모님들이 간혹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른들이 아동(만18세 이하)을 위해 지켜줘야 할 4개의 권리를 말합니다.



생존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맛있고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보호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아무도 나를 허락 없이 만지거나, 때리거나,
 괴롭힐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발달권

교육 받을 권리와 놀 권리

궁금하다면 배우고, 하고 싶은것을 꿈꿀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면서 배우고, 충분히 쉬고,
 교육 기관에 다니는 것도 아이들의 권리에요.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권리

어른들은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우리들의 생각을
 묻고 들어야 해요!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 할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야기 합니다.
때로는 혼나야 될 때가 있다고요.
즉, 훈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훈육'은 어떤 이미지 인가요?
갑자기 낮아지는 목소리, 무표정한 얼굴,
어두운 분위기 등을 떠올리지 않나요?

하지만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달리 품성이나 도덕을 가르쳐 기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목소리를 낮추고 무서운 얼굴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훈육을 할 수 있어요.

Q 부모 상황에 따라(조부모, 자녀와 외부활동, 부부간의견충돌등)
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기가 어려워요.

A 남구육아 자녀를 키우다보면 배우자(혹은 조부모)와의 양육방
식에서 간혹 의견충돌이 발생합니다. 나는 '안된다'고
제재하고 배우자(혹은 조부모)는 '애들이 크면서 다 그
렇지~ 괜찮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는 나와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합니다. 이런
경우, **가족간의 소통을 통해서 훈육의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아요.
일관되지 않은 훈육은 아이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호하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가족 모두가 지켜야 훈육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예) 식습관, 휴대폰 사용시간, 놀이감 정리정돈, 양치질 등)

특히, 유의할 점은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훈육방식으로 다투어서는 안됩
니다.** 아이를 감싸느라 훈육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식의 발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는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지 못합
니다.

자녀는 옳고 그름의 범위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점차 혼나지 않는
방법을 찾게 되는 피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수 있어요.

Q 부모 저는 조금은 혼나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버릇없고, 제멋대로인 것보다
때로는 체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A 남구육아 훈육이란 영유아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잘못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Gartrell, 2008) **'벌'과
'수치심'은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은 '바람직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
다. 영유아는 아직 미숙하여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표현
이 서툴기 때문에 '어른의 관점'으로 아이를 야단치기 전에 먼저 '아이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아이의 감정과 생각에 공감해 주세요. 아이
행동의 '결과'보다는 '의도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화를 견디지 못해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는 아이의
경우 만약,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을 비난하고 무섭게 야단치고 벌을 준
다면 자녀는 영유아 발달 특성상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
닫기보다는 '부모가 자신을 이유없이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대한 자녀의 관점에서 동기나 의도에 중점을 두어 아이의 감정과 생각
을 먼저 공유한 후, 아이의 연령에 맞추어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체벌 없이도
훈육할 수 있어요! 가르치기 위한 체벌은 결국 폭력이며 학대라는 사실
을 잊지마세요!

Q 부모 참다가도 한번씩 욕!하고 올라와
결국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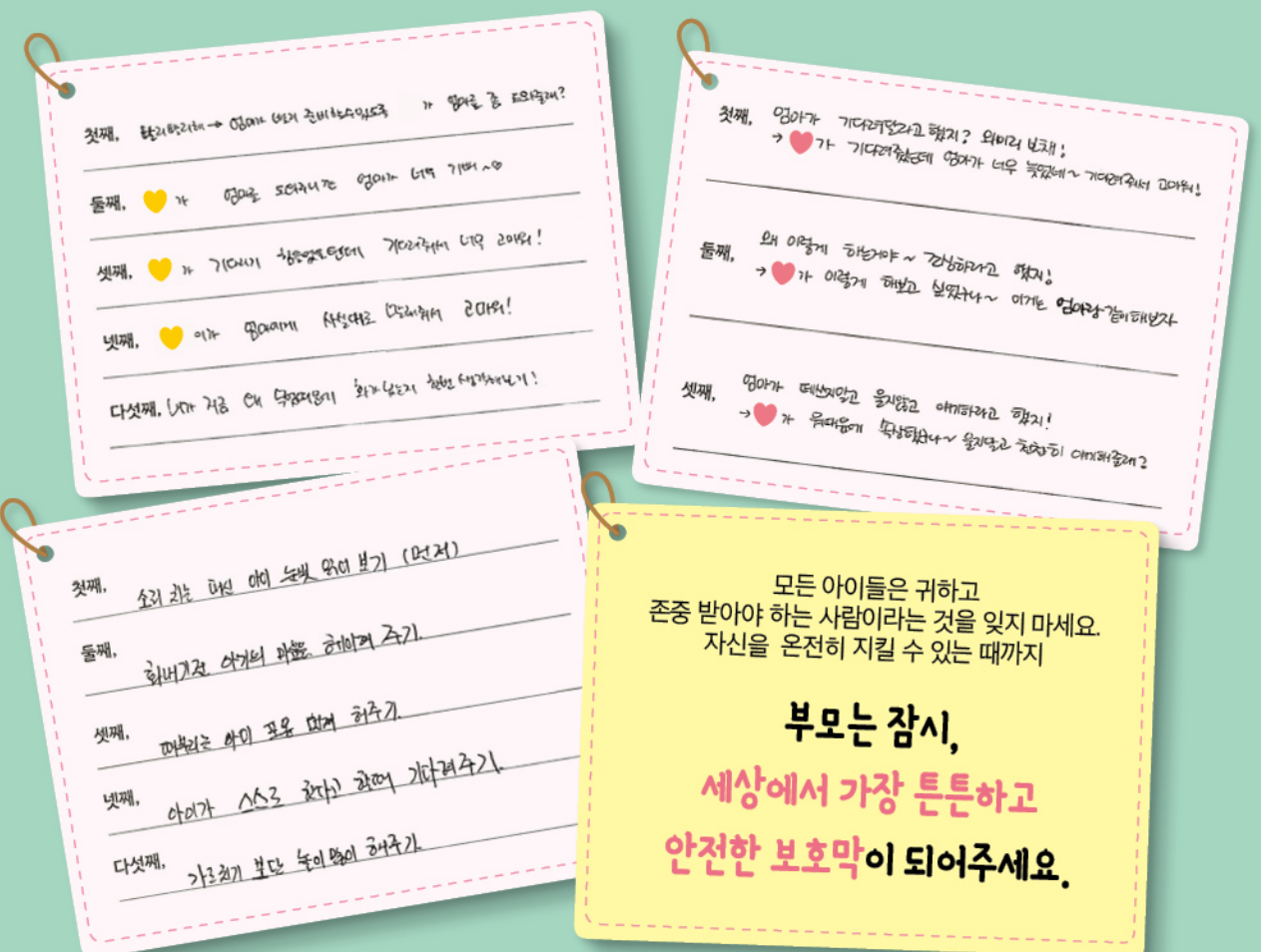
A 남구육아 아이들은 부모의 음성 높은 소리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아이에게 아주 큰 상처로 남기
도 해요. 부모는 부모대로 '좀 참을걸. 나는 나쁜 엄마
야.' 등 죄책감과 좌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면, **잠시 멈추고(자기조절시간)** 내가 아이에
게 뭘 말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녀에게 사과하면서 말
해주세요. 자녀에게 사과를 한다는 건 **아이와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고,
소리지름으로 자녀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과
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후
에, 자녀 행동의 대안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자신의 스트레스지도도 살펴봐야하겠죠?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예) "소리질러서 미안해. 놀랐니? 00이가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엄마를 보지 않아서
엄마도 모르게 큰소리가 나왔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잠시 여유를 두고) 조금 전 그
행동은 매우 위험한거야. 하지 말아야해. 하지만 집이 아닌 바깥(놀이터)에서는 할 수
있어. 엄마가 지금은 집안정리를 하는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00이가 조금 기
다려주면 엄마랑 함께 놀이터에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기다려 줄래? (대안제시)

우리아이, 인권지킴이

인천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017년에 '우리아이 인권지킴이' 라는 부모 소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조모임에 참여 하였던 지킴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인권존중 실천 서약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활동도 진행하였는데요.
우리도 자녀를 위한 실천 서약을 정해보는건 어떨까요?



우리아이
인권존중
실천
서약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